

KEDI BRIEF

발행일 2026. 09. 22.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고영선

편집 성과확산실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연락처 043-530-9231, 9237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효과와 보완 과제는?¹⁾

- 진로 준비 행동은 향상, 소속감·취업 성과 제고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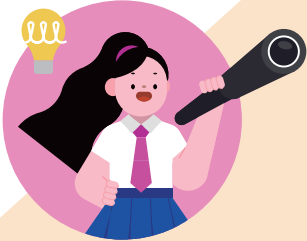
유 예 림 연구위원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가 대학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세 종류의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 다전공 이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노력, 신입생 경쟁률, 졸업생 진학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학생의 전공 소속감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대학의 중도탈락률, 졸업생 취업률 측면에서는 일반 학과 대비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브리프에서는 학생의 소속감 제고를 위한 전담교수제 및 선배 멘토링 확대, 전공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전공 연계 프로그램 및 밀착형 학습지원 제공,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다양한 전공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전공자율선택제 #무전공제 #정책 효과

1) 본 브리프는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고등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 탐색 연구」(유예림 외, 2025)를 바탕으로 작성됨.

www.kedi.re.kr



1. 들어가는 말

가.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대학의 전공자유선택제 도입 및 확대

전공자유선택제(무전공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 지원하에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²⁾(교육부, 2025.3.)로, 기존의 학부제 및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권한을 확대하고 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2024년부터 전공자유선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공자유선택제는 대학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6년 현재 전국 73개 대학이 전공자유선택제를 도입하였으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4만 1,299명(전체 모집인원의 11.9%)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6.6.22.). 정부가 전공자유선택제를 적극 도입한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비교적 많은 대학이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전공자유선택제의 효과 탐색

전공자유선택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그 실질적 효과와 가치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공자유선택제의 정책 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체화하거나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공자유선택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장·단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전공자유선택제의 효과를 ‘학생’과 ‘대학’ 차원에서 실증적·선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자유선택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전공자유선택제의 효과 분석 개요

가. 분석 모형

본 브리프에서는 정책평가를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한 Nachmias (1979)의 관점을 채택하여, 전공자유선택제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전공자유선택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유형 1’은 학생이 보건의료와 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효과성 평가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효과(effect)로는 투입 및 활동에 따른 직접적 산출(output)이 강조되나, 본 브리프에서는 정책 시행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새롭게 겪게 되는 경험인 과정(Process) 또한 효과로 포함하였다. 또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 점검 뿐 아니라 문제해결도 가능하도록(정정길 외, 2004) 의도된 효과와 더불어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25)가 강조하는 정책평가의 다층적 책임을 반영하여 학생과 대학 차원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였다.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의
4단계를 고려한
CIPP 분석 모형 적용

이러한 분석 방향에 근거하여 본 브리프는 CIPP 모형(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Model)(Stufflebeam & Shinkfield, 2007)을 기반으로 전공자율선택제 효과 분석 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해당 모형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의 4단계, 9개의 평가 준거, 총 36개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표 1〉 CIPP 모형을 적용한 전공자율선택제 효과 분석 모형

단계	평가 준거	평가 요소
상황 (Context)	1. 교육 및 정책적 요구분석	1)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는가?
		2)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는가?
		3)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되었는가?
	2. 목표 설정	4)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자율선택제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는가?
		5) 전공자율선택제의 추진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한가?
투입 (Input)	3. 인적·물적·제도적 지원 체계	6)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7)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학내 구성원의 역량 강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8)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재정, 전용 공간 등의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9)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전공선택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는가?
		10)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과정 (Process)	4. 교육과정 운영	11)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는가?
		12)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체계가 맞춤형으로 운영되는가?
		13) 전공 및 진로 탐색 관련 교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가?
		14) 전공별 교육과정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가?
	5. 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	15)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16) 전공 탐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는가?
		17) 흥미 및 적성,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기반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18) 학생 주도형·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가?
	6. 상호 협력 및 점검·환류	19) 전공 탐색 과정을 통해 교수와 상호 소통할 기회가 충분한가?
		20) 전공 탐색 과정에서 전공 선배나 또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충분한가?
		21) 학교 내부 유관 조직 및 부서 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2)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환류 체계가 주기적으로 작동하는가?
		23) 전공기초능력 부족, 중도탈락 위험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지원이 검토되는가?
		24) 학생 의견수렴 및 조사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지는가?

(계속)

단계	평가 준거	평가 요소
산출 (Product)	7. 정책 만족도	25)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에 대한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등)의 만족도는 긍정적인가?
	8. 학생 차원의 효과	26) 학생의 전공몰입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27)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는가?
		28) 학생의 진로 탐색 측면(진로성숙도, 전공-흥미 일치도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29) 학생의 졸업 후 성취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30) 학생의 역량(자기주도, 창의·융합, 문제해결 등)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9. 대학 차원의 효과	31) 대학의 학생 확보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32) 대학의 학생 유지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33)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34) 대학의 취업 성과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35) 대학의 진학 성과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36) 전공의 벽을 허무는 대학의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출처: 유예림 외(2025), pp. 109~110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함.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과정 및 산출 단계, 학생 및 대학 차원의 효과 분석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실증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수집한 세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표 2〉 참조). 분석 대상은 일반 및 산업대학의 학생 및 모집단위(학과·전공)이다. 다만,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의 경우 교육 및 의약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열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앞서 제시한 CIPP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과정 및 산출 단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학생’ 차원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와 일반 학과·전공 학생 간 교육 경험(과정) 및 효과(산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표본 조사인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조사」(NASEL-i)와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KELS)의 학생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학’ 차원에서는 국가수준의 전수조사 자료인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고등교육통계)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고등취업통계)를 활용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일반 학과·전공 집단 간 신입생 경쟁률, 중도탈락률,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진학률 등 주요 성과지표(산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2〉 전공자율선택제 효과 분석을 위해 활용된 고등교육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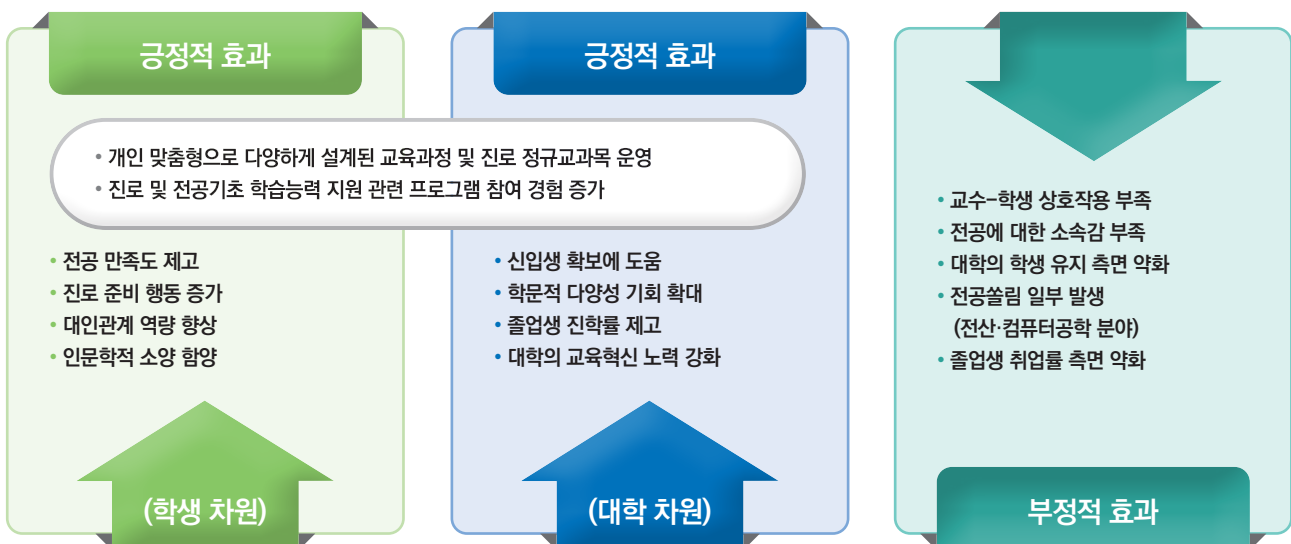
데이터의 유형 및 시점		분석 대상		분석 변수	
		전체	전공자율선택제	과정 단계	산출 단계
학생 설문 (횡단) (표본)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조사」 (2024년)	24,585명	706명 (전체 분석 대상의 2.9%)	• 교육과정 운영 • 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 • 상호 협력 및 점검·환류	• 전공몰입 • 진로성숙도 • 역량 • 학문의 다양성 보장 • 교육과정 혁신 노력
학생 설문 (종단) (표본)	「한국교육총단연구 2013」 8차~9차 조사 (2021~2022년)	2,030명	139명 (전체 분석 대상의 6.8%)	-	• 전공몰입 • 전공 적합성 • 진로성숙도 • 역량 • 학문의 다양성 보장
국가 교육통계 자료 (전수)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24년)	10,624개 모집단위 (총 190교)	391개 모집단위 (전체 분석 대상의 3.7%)	-	• 학생 확보(신입생 경쟁률) • 학생 유지(중도탈락률) •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진학률

출처: 유예림 외(2025), p. 1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3.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 분석 결과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정 단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산출 단계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그림 1] 전공자율선택제의 학생 및 대학 차원의 효과(종합)



출처: 유예림 외(2025), p. 191에서 인용함.

가. 과정 단계

프로그램은 다양해졌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낮아

과정(Process) 단계의 경우, 전공자율선택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과 및 학습·진로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다만, 교육과정과 진로·취업 간 연계성이나 진로 설계 교과 및 진로 상담 등에 대한 참여도는 일반 학과·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동료·선후배와의 상호작용 또한 일반 학과·전공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치상 보통 이하의 수준(4점 만점 기준 2.8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일반 학과·전공 대비 전공자율선택제를 경험한 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3〉 CIPP 모형을 적용한 전공자율선택제 효과 분석 결과: 과정 단계

평가 준거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	분석 결과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NASEL-i	무전공 > 일반
	개인 맞춤형 설계			무전공 > 일반
	진로·취업과의 연계성			ns
	진로 관련	자기이해·진로 탐색 교과 참여도		무전공 > 일반
	정규 교과목 운영	진로설계 교과 참여도		ns
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	개인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상담 등) 참여도			ns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설계 지원 제도 참여도			무전공 > 일반
상호 협력 및 점검·환류	교수-학생 상호작용			무전공 < 일반
	동료·선후배와의 상호작용			ns
	전공기초능력 등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무전공 > 일반

주: 1)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경험 집단, '일반'=전공자율선택제 미경험 집단, 'ns'=무전공-일반 학과·전공 집단 간 통계적 차이 없음(not significant).

2) 음영 부분은 분석 결과 '무전공 > 일반 학과·전공'으로 나타난 평가 요소임.

출처: 유예림 외(2025), p. 190에서 발췌함.

나. 산출 단계

학생의 진로 준비,
대인관계 역량, 인문학적 소양,
대학의 학생 확보와
진학 성과는 긍정적

산출(Product) 단계의 경우, '학생' 차원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효과는 진로 준비 행동, 대인관계 역량, 인문학적 소양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전공에 대한 소속감, 진로 계획의 경우 일반 학과·전공 대비 전공자율선택제 경험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학생의 전공 소속감,
대학의 학생 유지 및
취업 성과는 과제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 확보 및 졸업생 진학, 대학의 교육 혁신 노력 측면에서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학문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이 비교적 다양한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였으나, 전산·컴퓨터 공학 분야에 일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 유지와 졸업생 취업에 관한 지표는 일반 학과·전공 대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 CIPP 모형을 적용한 전공자율선택제 효과 분석 결과: 산출 단계

평가 준거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	분석 결과
학생 차원의 효과	전공몰입	전체	KELS	ns
		전공 만족도	KELS	ns
			NASEL-i	무전공 > 일반
		전공 소속감	NASEL-i	무전공 < 일반
	전공 적합성(전공-흥미 일치도)		KELS	ns
	진로성숙도	진로 계획	KELS	ns
			NASEL-i	무전공 < 일반
		진로 준비 행동	KELS	무전공 > 일반
	역량 향상도	인지적 역량 (자기주도, 문제해결 역량 등)	KELS	ns
			NASEL-i	ns
		대인관계 역량	KELS	무전공 > 일반
		의사소통 역량	KELS	ns
		창의·융합 역량	KELS	무전공 < 일반
			NASEL-i	ns
		인문학적 소양	NASEL-i	무전공 > 일반
대학 차원의 효과	학생 확보(신입생 경쟁률)		고등교육통계	무전공 > 일반
	학생 유지(1-중도탈락률)		고등교육통계	무전공 < 일반
	학문적 다양성 보장	전공 쏠림 발생 여부	KELS	전산·컴퓨터공학 일부 집중
		입학 이후 다전공 여부	NASEL-i	무전공 > 일반
	교육 성과: 졸업생 취업률		고등취업통계	무전공 < 일반
	교육 성과: 졸업생 진학률		고등취업통계	무전공 > 일반
	교육과정 혁신 노력		NASEL-i	무전공 > 일반

주: 1)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경험 집단, '일반'=전공자율선택제 미경험 집단, 'ns'=무전공-일반 학과-전공 집단 간 통계적 차이 없음(not significant).

2) 음영 부분은 분석 결과 '무전공 > 일반 학과-전공'으로 나타난 평가 요소임.

출처: 유예림 외(2025), p. 190에서 발췌함.

4.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제언

가. 학생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내실화

본 브리프의 분석 결과, 교육과정과 진로 및 취·창업 간 연계성, 선택 전공과 적성·흥미 간 일치도는 전공자율선택제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각 대학이 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전공별 진학 및 취·창업과 연계된 사례 기반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의 주제적·실제적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가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유예림 외, 2025)을 고려할 때, 학년 등 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 설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하게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전공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전공 연계 프로그램 및 밀착형 학습지원 제공

전공자율선택제에 관한 대학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박민정·최경식, 2025; 엄유경, 2025)에서는 학생의 전공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브리프의 분석에서도 전공기초능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배정받는 2학년 시점에 전공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전공 연계(bridge)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 간 학업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튜터링과 학습코칭 등 개인 맞춤형·밀착형 학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학생의 소속감 제고를 위한 전담교수제 및 선배 멘토링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의 소속감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 중심의 전담교수제를 도입하여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학년 전공 진입 이후 기존 학과·전공 입학생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전공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멘토링을 포함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학업 조언(academic advising)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업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다양한 전공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 제공

전산·컴퓨터공학 등에 대한 전공 쏠림 현상은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 쏠림은 시대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전공 쏠림을 단순한 완화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전공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 심층 분석을 위한 국가 수준 데이터 체계 구축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가용 데이터의 제약으로 전공자율선택제의 다양한 운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통계, 교육패널 조사, 대학별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 자료를 연계한 고등교육 성과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 시기와 유형, 학사 관리 주체, 상황 및 투입 단계 지표 등 다양한 최신 맥락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5.3.).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https://www.moe.go.kr>
- 박민정, 최경식(2025). 자율전공 학생을 위한 교육 방법 및 체제 설계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0), 200-221.
- 엄유경(2025).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요구도 및 우선순위분석: A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689-702.
- 유예림, 손윤희, 이승주, 김지은(2025). **고등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정길, 성규탁, 이윤식, 이장(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법영사.
- 한국대학신문(2026.6.22.).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1년, 자유의 이면에 드리운 불안과 과제**.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3721>
- Nachmias, D. (1979). *Public Policy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s*. NY: St. Martin's Press.
- OECD (2025). *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Toolkit*.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02/implementation-toolkit-for-the-oecd-recommendation-on-public-policy-evaluation_f24516be/77faa4fe-en.pdf
- Stufflebeam, D. L., & Shinkfield, A. J. (2007). *Evaluation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The logo for KEDI BRIEF. The word "KEDI" is in a bold, white, sans-serif font. The word "BRIEF" is in a lighter, white, sans-serif font, positioned directly below "KEDI".

KEDI BRIEF

www.kedi.re.kr